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선이의 특별한 돌무더기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부자 영감의 쌀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던 선이의 착한 마음과 지혜를 배운다.
- **주제** : 지혜, 나눔

핵심어 농사, 곡식, 쌀, 도토리, 돌멩이, 금, 부자, 지혜, 나눔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전통 음식인 도토리묵 만드는 법과 먹는 방법을 알아본다.
- **요소** : 도토리묵

한국어

- **목표** : 한데 쌓여있는 무리를 세는 단위, 곡식이나 소금을 세는 단위에 대해 알아본다.
- **단어** : 무더기, 더미, 말, 섬, 가마니
- **표현** :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쌀더미를 쌓아 놓았어요, 쌀 한 가마니만 빼놓았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선이의 특별한 돌무더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는 돌맹이를 쌓아 놓은 것을 말해요. 이야기 속 주인공 선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마음씨 착한 소녀예요. 어느날 선이가 돌을 주워다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해요. 선이는 왜 돌무더기를 만들었는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선이의 특별한 돌무더기'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어찌나 욕심이 많던지 곡식을 쌓아 놓고도 배고픈 사람에게 쌀 한 톨 나눠 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남에게 곡식을 빌려주면 두 배로 받아 갔어요. 또 빌려준 곡식을 받지 못하면 땅까지 빼앗는 욕심쟁이였지요.

같은 마을에 사는 선이 부모님도 부자 영감에게 쌀을 빌렸어요. 가을이 되어 잘 익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에게 빌린 것을 갚고 나니, 당장 먹을 게 없었지요. 선이 부모님은 앞으로 먹고살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어 한숨이 나왔어요.

“어휴, 어찌나. 쌀 한 톨 없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착한 선이는 도토리를 주우러 산으로 갔어요. 부모님께 도토리묵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수풀 사이를 헤치며 열심히 도토리를 줍던 선이는, 노란빛이 나는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예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야기 들려주기

그날 밤 선이는 꿈속에서 흰 수염에 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선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선이야, 내일부터 높다랗게 돌무더기를 쌓고, 그 꼭대기에 오늘 주워 온 노란 돌을 올려놓도록 하여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다음 날부터 선이는 꿈속의 할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돌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돌무더기가 담장보다 높아지자, 선이는 맨 꼭대기에 반짝거리는 노란 돌을 올려놓았지요.

한편, 곡식을 거둬들인 부자 영감의 마당에는 쌀이 백 섬이나 쌓였어요.

“하하하, 쌀더미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둘러볼까?”

부자 영감은 선이네 집을 지나다가, 선이가 쌓아 놓은 돌무더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금 무더기야냐? 저 정도의 금이면 나보다 더 부자잖아? 아이고, 배야. 어떻게 하면 저걸 다 빼앗을 수 있을까?”



이야기 들려주기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눈에는 돌무더기가 금 무더기로 보였던 거예요.
부자 영감은 당장 선이네 집으로 갔어요.

“선이 아범, 자네 집 뒤뜰에 있는 것들은 어디서 구한 것인가?”

“아, 그건 우리 선이가 어디서 쓸데없는 돌들을 모아 와서는 잔뜩 쌓아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음, 금도 몰라보다니……. 흐흐흐!’

부자 영감은 선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자네, 저 돌무더기를 우리 집 쌀 백 섬과 바꿀 생각이 없는가?”

“네? 뭐라고요? 저 돌무더기를요?”

“내가 급하게 돌맹이들이 필요해서 그러네. 제발 부탁하네.”

아버지와 부자 영감의 말을 들은 선이는 부자 영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 그럼 저 돌무더기와 쌀 백 섬을 바꾸자는 약속의 글을 쓰시면 드리겠어요”

“암, 쓰고말고. 당장 쓰자.”

부자 영감은 금덩이들을 모두 가질 생각에 약속의 글을 썼지요.

“그런데 쌀을 모두 주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 맨 꼭대기에 있는 쌀 한 가마니만 빼야겠어.”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도 꼭대기에 있는 돌 한 개만 빼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돌무더기와 쌀 백 섬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온 부자 영감은 그만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돌멩이잖아?”

꼭대기에 있던 반짝이는 노란 돌 때문에 다른 돌도 노란 금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화가 난 부자 영감은 선이네 집으로 달려갔지요.

“여보게, 선이 아범!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세.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 내 쌀 백 섬을 돌려주게나.”

욕심쟁이 영감이 선이네 집으로 찾아와서 쌀을 도로 달라고 떼를 썼어요.

“그건 안돼요. 여기 이렇게 약속의 글을 쓰셨잖아요?”

선이의 말에 부자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답니다. 부자 영감이 돌아간 뒤, 선이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이 쌀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 부자 영감에게 쌀을 뺏기고 어렵게 지내잖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마을 사람들은 선이의 착한 마음과 지혜를 칭찬했어요. 그 후, 이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부자 영감이 선이의 돌무더기를 보고 쌀 백 섬과 바꾸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부자 영감에게는 선이의 돌무더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쌀 백 섬과 바꾸자고 했지요. 여러분은 쌀을 세는 단위를 알고 있나요? 사실, 쌀 한 가마니는 팔십 킬로그램으로 어른 한 사람 몸무게만큼 무거워요. 쌀 한 섬은 거의 쌀 두 가마니예요. 그래서 쌀 백 섬은 쌀 이백 가마니니까 쌀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씨 착한 선이는 도토리를 주으러 산으로 갔어요. 부모님께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나요?

네, 도토리묵이지요. 여러분은 도토리묵을 먹어 본 적이 있나요? 도토리묵은 도토리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끓이고 식혀서 굳힌 것입니다. 도토리묵은 약간 떫은 맛이 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고 해요. 도토리묵으로 만든 음식으로는 도토리묵무침, 도토리묵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토리묵을 먹어볼 일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도토리묵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선이의 특별한 돌무더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자 영감은 선이의 돌무더기가 모두 금덩어리인 줄 알고 욕심을 부렸어요. 돌무더기 꼭대기에 있던 반짝이는 노란 돌 때문에 다른 돌도 모두 황금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돌무더기와 쌀 백 섬을 바꾸자는 부자 영감의 말에 선이는 약속의 글을 쓰고 쌀을 얻게 되었어요. 쌀은 어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선이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